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육조단경 ③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은 세간(世間)의 보배요, 구하면 반드시 얻어지는 것은 마음의 보배라고 한다. 왜냐하면 세간의 보배는 외부세계에 있고 마음의 보배는 내부에 있는 까닭이다. 마음을 왜 보배라고 하는가? 이 마음을 잘 쓰면 모든 귀중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보배인 줄을 모르는 것이 중생이요, 이것이 보배인 줄을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부처요 보살이요 성현이다.

이 보배는 작게는 한 티끌 속에 볼 수 있고, 크게는 천지를 다 감싸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것이다.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으며 멀리 있고, 밝기로 말하면 해와 달과 같이 밝으면서도 칠흑과 같이 캄캄하다. 또 한량없는 조화를 갈무리하고 있으며, 공덕을 구족

얻어 마음의 보리반야(菩提般若)를 성취하기 위한 마음공부를 말하는 것이다. 선을 실천하면서도 어떠한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죄(罪)라는 것은 본래 상이 없는 것이지만, 죄라는 것에 집착하는 망상을 일으켜 자신의 본성(本性)에 해를 입히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것에 집착하고,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지만 생각과 입으로 남의 시비장단을 떠들고 하여 도(道)에 어긋나고 만다.

혜능스님의 참선 법문 속에 는 화두를 참구하라는 선법(禪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화두에 의한 참선은 후대에 이루어진 선이기 때문이다. 참선을 통해서 견성하는 법이 반드시 화두선이어야 한다는 철칙은 있을 수 없다. 상근기 사람에게는 일체가 화두 아닌 것이 없고 자성을 안으로 살

잘 쓰면 마음이 곧 보배

일체 경계에 흔들리지 않아야 직선

하게 갖추고 있고, 아무리 쓰고 또 써도 다함이 없고, 천고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 이 신묘한 보배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다 찾지 않으므로 진흙 속에 버려져 있을 따름이다.

〈육조단경〉에서는 이 '마음'을 찾는 방법으로 좌선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좌선은 곧 우리들이 말하는 참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형식에 치우친 참선이나 아니라 안으로 자성(自性)을 살펴보고 일체의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선정(禪定)을 말한다.

"선지식이 어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의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좌(坐)라 이름하고,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을 보(보)는 것을 선(禪)이라 하느니라. (善知識이 何名坐禪과 此法門에 無障無礙야 外於一切善惡境界에 心念不起名坐요 內見自性不動이 名爲禪이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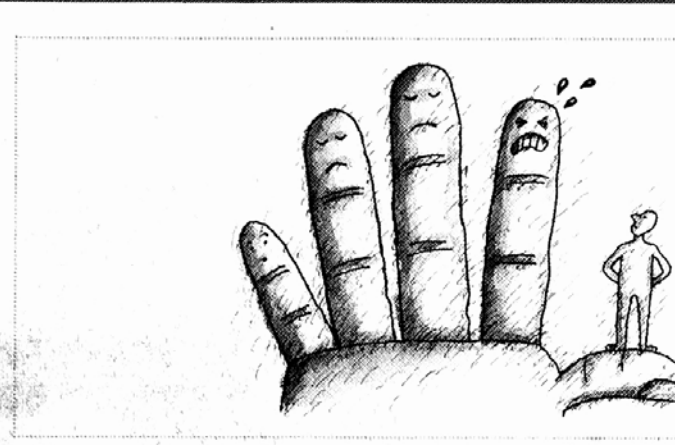
이렇듯 좌선은 선을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정혜(定慧)를

퍼 깨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혜능스님의 교수좌선(教授坐禪)의 핵심은 마음이라 하여 집착한다든지, 이런 것이 마음인가 하고 보는 것은 다 같이 마음에 대한 관념이나 형상을 세우는 것이 되므로 결국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무일물(無一物)의 자성을 등지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이 보배의 구실을 못하는 것은 탐·진·치의 번뇌 때문이요, 번뇌는 육체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번뇌를 다스리기 위하여 육체를 확대하는 고행주의도 있거니와 만약 마음을 보배롭게 쓰는 경우 육체야말로 다시없는 보배가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육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배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또 육체가 아무리 보배라 하여도 자연이나 인간의 환경이 없으면 보배 노릇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마음을 잘 쓰면 근신기계(根身器界)가 모두 보배로운 것이니 이것이 어찌 정불국토(淨佛國土)가 아니겠는가?

■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문병성

삶의 한가운데 신비가 있다

불교와 과학 <6>

일상성 - 1

세상에는 정말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 많다. 날마다 같은 방향에서 해가 뜨고 지는 일, 더불어 저녁 노을 저편 하늘의 아름다운 땅의 이부자리, 각양의 색깔을 자랑하며 때만 되면 어우러지는 그림 같은 낙엽의 시(詩)들, 먼 달의 힘에 따른 거대한 바닷물들의 끌고 당기는 힘들, 좁쌀보다 더 작은 씨앗이 그 언 땅을 헤치고 나오는 생명의 기운들, 세상의 모든 쪽포들이 한결같이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는 중력의 신비함.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 깜짝거리는 자동조절기능이나 배고플 때 그때를 맞춰서 포르륵거리는 소리들, 사람이 죽어 살짐 하나 남김없이 해치우는 곰팡이의 위대한 자정능력, 사람이 만든 어떤 동력장치도 따를 수 없는 심장의 박동들, 엄지와 검지가 서로 링을 만들 수 있어서 비로소 물건을 잡고 놀릴 수 있는 호모 파베르의 능력들.

그래서 진짜 신기하고 신비한 것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일상적 주변에 있었다. 일상성이 바로 신비함이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일상성의 신비를 놓치고 밖의 세계에서 신비를 찾아 헤매는 장님이 되어 버렸다. 좌선하는 이의 참된 수양의 의미가 퇴색하여 지적적인 건성이나 부양효과를 떠드는 이들, 정력제의 환상 속에서 방상 위의 음식 버리고 불로초의 기적을 바라는 아저씨들, 자기 지식들과 교육환경에 대한 진정한 대화도 없이 지식의 대화합격만을 기도하는 아줌마들, 모두 밖에서만 환경을 찾아 헤매는 일상성의 장님이 되어버렸다.

하늘을 다시 보자. 태양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지구가 돌고 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멀리 떨어져 우주의 교아가 되지도 않게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는지, 태양이 끄는 힘에 브

러 지구가 태양에 흡입되어 충돌하지도 않고 그렇게 적절한 거리에서 돌고 있는지 정말 신비한 일이다. 뉴턴은 이러한 신비한 현상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 왜 그렇게 돌고 있을까? 달리 운동하지 않고 왜 꼭 그렇게만 돌고 있는지 이유를 묻는 일상성의 질문이었다. 그러나 뉴턴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내 찾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찾아내었다. 그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자연과학의 위대한 성과로 나타났다.

과학 자연 현상서 물리법칙 발견

불교 셋별 보면서도 깨달음 얻어

이때부터 과학은 세계운동에 대하여 '왜'라는 질문을 삼가고 과학과 신화의 구획(demarcation)을 보여 주었으며, 그 대신 '어떻게'라는 현상해석에 몰두하였다. 어떻게 접촉도 하지 않은 두 물체가 서로에게 운동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정말로 신비한 일이다. 이런 운동의 신비한 힘들을 이해하는 일을 과학에 맡기면서부터 우리는 그 운동의 신비함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기 시작하였다.

뉴턴 이전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운동현상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운동현상을 구분지어 생각했다. 그래서 땅의 현상은 일상성에, 하늘의 현상은 신비함에 대비시켰다. 그러나 뉴턴은 땅의 일상성과 하늘의 신비성을 하나로 묶어, 즉 땅의 중력과 하늘의 만유인력을 하나의 운

동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상성과 신비성이 하나라는 삶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산다. 그것이 바로 지난 후에 이야기했던 인드라 망이다.

일체의 신비성이 없으며 그 모든 것이 일상적인 인드라 망이라는 것이 있다. 나의 손가락 끝만을 볼 수 밖에 없는 이선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손가락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다섯 개의 개별적인 개체라고 말하지만, 내에게는 나의 손가락들이 손에 붙어 있는 하나의 손일 뿐이다. 이선재는 나의 손가락들이 모두 떨어져 있는 개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 새끼손가락이 다친 것을 동시에 엄지손가락이 같이 아파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나의 손가락들이 모두 나의 손으로 하나로 묶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끼

리 아픔을 공유하는 일이 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손가락끼리 아픔을 동시에 공유하는 일이 이선재에게는 신비한 일이지만 내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성일 뿐이다.

그래서 인드라 망이라는 것은 대단한 신비의 교조적 터들이 아니라 지평 하늘의 노을과 각양의 단풍들의 어우러짐, 작은 씨앗의 생명기운, 눈의 깜짝거리거나 심장 박동처럼 일상성의 바구니와 같으며, 단지 '어떻게'가 밝혀지지 않은 일상성의 현시일 뿐이다. 이제 이선재는 우당바리의 꽃을 밖에서만 찾으려 했던 신비의 환상에서 벗어나, 그의 작은 삶 한가운데서 진짜 신비한 일상성을 찾기도 했다.

■ 최충덕/상지대 교수 (jchoi@chiak.sangji.ac.kr)

일자리 찾거나 결혼때 출가 경험 필수요건

지구촌 불교 / 태·미안마 단기출가

미안마와 태국의 남자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출가생활을 경험해야 한다. 이들에게 출가생활은 단순히 불교의 교리와 세계관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로서의 행동양식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다. 출가생활에서 배우고 지키는 교리와 계율은 환속 후에도 그들이 불교적 사고와 행동양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미안마의 단기출가제도는 '신퓨(shinpyu)' 의식이라고 한다. 싯다르타 왕자의 출가를 따르는 의식으로 부타의 자식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안마에서 10~15세까지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신퓨의식을 치르고 나면, 남자로서 나아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퓨의식 기간 동안 단기출가자들은 사미승으로서 청소나 물고기 등 사찰의 잔일을 하면서 빨리어나 불교 교리, 예절 등을 배운다. 신퓨의식은 대개 우기 3개월 동안의 인가 기간에 이루어지며, 10계를 수지하게 된다. 미안마인들은 신퓨의식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몇 번이라도 출가생활을 반복한다.



◇신퓨의식 중인 나이 어린 미안마 스님들.

1주일~3년 사찰서 교리·계율 배워 환속후 보시 등 불교 가르침 생활화

태국의 단기출가제도는 '부엣낙(buactrak)' 이라고 한다. 태국 남자는 누구나, 심지어 왕실 남자들까지도 만 20세가 되면 길게는 3년에서 짧게는 일주일까지 부엣낙을 경험해야 한다. 후 코타이왕국의 리타이왕이 왕의 신분으로 출가한 것에서 유래된 부엣낙은 대개 우기 3개월 동안의 인가 기간에 이루어진다. 이 기간 동안에는 227계를 수지하며, 빨리어나 된 경·율·론 삼장(三藏)을 배운다. 아침과 자만을 없애기 위해 매일 아침 탁발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다.

이와 같이 단기출가를 마치고 환속한 이들은 도덕적으로 완숙된 인간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불교적 윤리체계의 습득과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것이다.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단기출가의 경험은 필수조건이다. 단기출가를 하고자 할 때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주거나 대기업을 출가를 위한 휴가기간과 인원수를 명문화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신퓨의식과 부엣낙은 공통적으로 표의 한 방편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출가가 최대의 공덕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 나라에서 아이들이 출가함으로써 부모는 공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의식은 미안마와 태국이 불교국가의 전통이 된 태국과 미안마가 불교국가의 전통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단기출가를 통해서 교리와 계율을 배우고 그것을 환속 후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불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 삼보에 대한 감사와 보시정신이 사회적인 미덕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도 단기출가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능력"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공)446-4422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經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은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전화주문도 가능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02) 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